



2014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집프,
뛰어올라 **희망**을 찾자!



주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0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민주회계공동가교사업회 KBS MDC SBS EBS YTN 한겨레신문사 Y주 여성신문사 OmyNews 동아일보

협찬 유한킴벌리 KRA 한국여성회 KDB산업은행 AMOREPACIFIC unilevera Palmolive KYOBO 교보생명 광동제약(주) HAAN 한진중공업화학

“나는 카페” 희망이야기

장애를 딛고 바리스타가 되다

지적장애인 용승씨는 요즘 신바람이 납니다.

대학에 낙방하고, 일용직으로 일하던 대형마트도 그만두게 되었지만,
한국마사회의 발달장애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꿈을 잡고 프로젝트'를 통해
꿈에 그리던 바리스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커피 프린스 1호점'을 보고 바리스타의 꿈을 키워 왔다고 하는 용승씨는
이제는 어엿한 한국마사회 '나는 카페'의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나는 카페'는

발달장애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꿈을 잡고(Job Go) 프로젝트'와 함께
바리스타를 꿈꾸는 발달장애청년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희 망 愛 찬 - KRA 한국마사회



바른 먹거리가 좋아지는 노래
함께 불러볼까요?

♫ 풀무원 '바른 먹거리 송'

자연의 맛 바른 먹거리

건강한 맛 바른 먹거리

내 몸이 좋아해요

착하고 바른 먹거리



동글동글 귀요미 콩 좋아해

두부 달걀 아삭아삭 콩나물

먹다 보면 키가 크는 소리가 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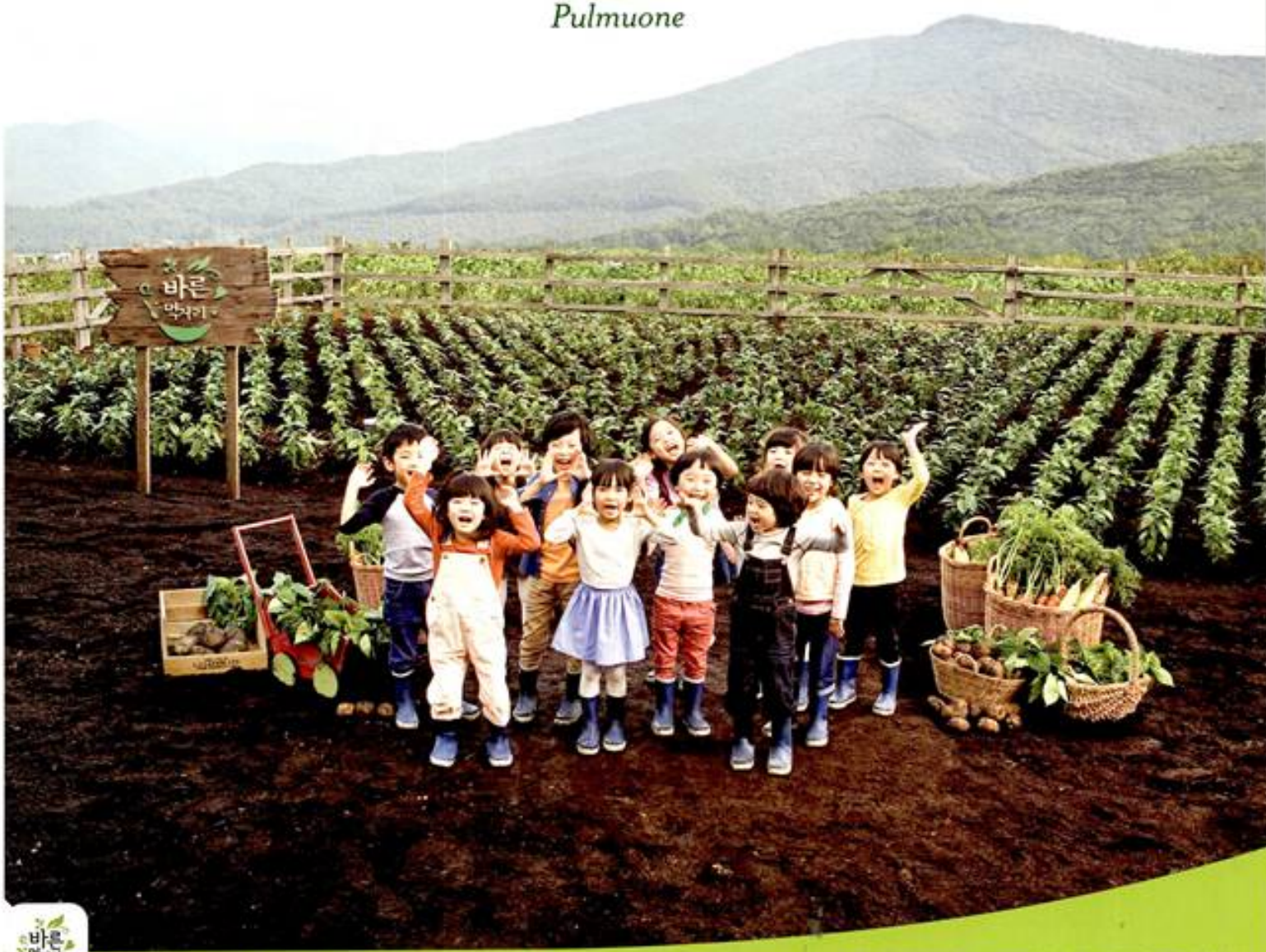
맛있게 골고루 꼭꼭 씹어 남남남



스스로 시작해요

착하고 바른 먹거리

Pulmuone





알로에의 면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성분, 면역다당체!

당신의 알로에는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맥스피와 비교하세요!

면역다당체 1일 섭취량
국내 최대 300mg
맥스피 드세요!

유니베라 알로엑스골드 맥스피

건강의 기초는 면역, 면역은 알로에!
이 사실에 주목한 유니베라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될 아주 놀라운 알로에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MAX-P 테크놀로지로 면역다당체 극대화!

과학적인 MAX-P 테크놀로지로 면역다당체 1일 섭취량을 300mg으로 극대화한
맥스피 드시고, 계신 알로에와 비교해보세요. 편히 국내 최대가 아닙니다.

유니베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완성!

영고 드십시오, 맥스피는 여덟 달에 걸쳐 최상의 해독능력을 가진 유니베라가,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농사지은 알로에로 연구, 개발, 생산까지 완성해낸
1mg의 거짓말도 없는 알로에입니다.

자식경제부 선정 10년 연속 세계일류상품 유니베라 알로에

우리 10년간 세계일류상품으로 인정받은 유니베라 알로에
그 유니베라 알로에로 만든 명품 알로에가 가려지고 드셔도 좋습니다.

300mg

1일 섭취량 중
면역다당체 함유량

www.univera.com 제품문의 1588-1976

(주) 유니베라 제품은 유니베라에게 구입하십시오.

유니베라는 건강과 아름다움을 고객에게 전하는 유니베라 플랜입니다.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10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입니다.

10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성평등한 사회로 점프하기 위해 30년의 시간 동안 가부장적 사회와 관행에 맞서서 참 많이도 싸워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조차 없었을 것이라 위안을 해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마치 거꾸로 가는 타임머신을 타버린 것처럼 역주행의 조짐이 보여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올해는 6.4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및 선출직에서 여성할당제가 확대되면서 1991년 0.9%, 2002년 2.1%에 머물렀던 여성 지방의원 비율은 2006년 15.1%, 2010년 21.6%로 큰 폭 증가를 견인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 앞에서 기존 정당에 의한 여성의무할당제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별격차는 세계 111위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여성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난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모녀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하고 빈약한지를 통감하게 됩니다. 여성 대통령시대, 여성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위해 여성을 쪼개진 시간제로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4대약 보함을 만들어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을 개인차원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점프해 봅시다.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 사람이 먼저인 공동체를 여성이 먼저, 여성의 노력과 의지를 모아봅시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고,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의 동등한 여성참여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다같이 힘껏 뛰어봅시다. 서로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환팅!!!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에게 진정한 봄이 찾아오길 희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과 작별을 고하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제 30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뜻 깊은 행사를 주최해주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금옥, 정문자 대표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저는 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빈곤 없는 세상·폭력 없는 세상·소외와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주제에 감명을 받고, 장관에 취임한 후 여성에 대한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주력해왔습니다. 여성인재양성과 여성대표성 제고를 통해 여성을 가로막고 있는 유리천장을 깨트리는 일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결혼이주여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등 다양한 현실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빈곤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길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힘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행사는 “점프, 뛰어올라 희망을 찾자!”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우리가 인구 절반인 여성의 잠재력을 계속 묶어 놓는다면 우리는 결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이 일·가정을 양립하지 못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노동의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면, 여성이 인권을 위협받고 기회가 차별받는다면, 여성의 행복은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가족의 행복,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행복도 절대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근로조건개선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에 중점을 두고, 여성의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불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여성들이 진정으로 높이 뛰어올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시기상으로는 봄이 왔어야 하지만 아직 날씨가 겨울일 때 우리는 ‘춘래불사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은 지금의 우리 여성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성에게 진정한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켜온 인권과 소통, 연대의 가치에 귀 기울이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힘이 하나로 모일 때 가능할 것입니다.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그 길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 30회 한국여성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106주년 세계여성의 날과 제30회를 맞이하는 '한국여성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먼저, 106주년 세계여성의 날과 제30회를 맞이하는 '한국여성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30년간 한결 같이 대회를 이끌어 오신 한국여성단체연합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수십년간 변화를 거듭해온 '한국여성대회' 슬로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미래를 반추해 봅니다.

민주화의 열기로 뜨거웠던 80년대에는 '민족, 민주, 생존권' 등의 표현들이 주로 사용되었고, 90년대에는 '모성, 참일꾼, 복지' 등의 주제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행복, 희망, 공동체, 장미' 등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운동의 가치가 여성의 행복에서 보편적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를 위한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국여성대회의 '정프, 뛰어올라 희망을 찾자'라는 슬로건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힘껏 도약하자는 것이니, 그간의 노력과 성과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힘찬 도약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30회 '한국여성대회'를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8일

서울시장 박원순 드림



남부원

(한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YMCA전국연
맹 사무총장)

3.8여성대회를 시민사회와 더불어 축하합니다

올해 30회째를 맞이하는 3.8여성대회를 한국의 500여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마음으로부터 따뜻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의 주제를 "점프 뛰어 올라 희망을 찾자"로, 그리고 "민주주의, 평등세상, 소통사회"를 부제로 채택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근본적인 성찰과 총체적인 변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월세 70만원과 미안함을 담은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세상을 하직한 세 모녀의 소식은 우리 모두를 부끄러움과 비통함 속에 빠뜨렸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이웃에 대한 예의를 끝까지 갖춘 이 세 모녀의 비극은 불의하고 매정한 우리사회의 실상을 웅변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은 그냥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정글사회에서, 그래도 이 지속불가능한 사회를 힘겹게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권력과 물질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가난한 여성들"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사회의 구석구석과 우리들의 의식 깊숙히 뿌리를 틀고 있는 가부장제의 그늘에서,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그 차갑고 비인간적인 지배질서 속에서 가장 밑바닥의 고단한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이들을 떠올리면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사회, 피로와 우울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그것을 찾고 만들어가는 자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번 여성대회가 '점프'를 통해 다시금 이땅의 수많은 여성들을 개인적·사회적 삶의 주인공으로 일으켜 세우려는 몸짓은 새삼 아름답고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구호로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민주주의의 1대 99의 사회로부터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공평한 사회, 그리고 권위주의와 위계가 사라지고 평등한 소통과 상호참여가 보장되는 평화로운 세상은 이 시대 한국 여성의 희망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의 꿈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여성연합이 이끄는 3.8여성대회를 시민사회와 더불어 축하드리며, 부디 이번 대회가 여성들이 중심에 서서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가는 뜻깊은 행사와 프로그램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장)

어려울 때, 희망은 늘 여성들이 만들어왔습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과제를 함께 고안하고 결의하는 날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는 날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985년부터 시작된 한국여성대회가 벌써 30회를 맞이했다니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08년 미국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서 생존권과 참정권을 외치며 행진했던 그 날보다 오늘 우리 여성들의 현실이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새 정부 1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와 평화위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우리여성들은 어려움 속에서 돌봄과 배려 그리고 소통하는 연대로 희망을 만들어왔습니다. 민주주의, 평등세상, 소통사회를 위한 '점프, 뛰어 올라 희망을 찾자'는 제30회 한국여성대회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전국의 여성활동가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울 때 희망은 늘 여성들이 만들어 왔다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 힘차게 뛰어 오르십시오.

다시 한 번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0회 한국여성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금옥·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민주주의, 평등세상, 소통사회를 위해 함께 '점프'합시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새벽부터 전국에서 달려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100여 년 전에 여성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상징이며 중심으로 활동해 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이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진행해 온 한국여성대회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성연합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여성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현실을 알리고 평등과 평화,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빈곤과 차별이 없는 지속 가능한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3.8 세계여성의 날의 의미를 알려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이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3.8 기념행사들이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여성대회 30주년, 민주주의를 향해, 평등세상을 향해, 소통사회를 위해 점프합시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사라지고, 양극화 심화로 빈부격차는 확대되었으며, 여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긴장된 남북관계로 평화도 위태롭습니다. 노동현장의 성차별과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겠다고 여성들을 저임금과 노동안건의 사각지대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몰아가는 통에 성별분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4대약근절의 구호 아래서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는 늘어나고, 여성들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소통도 없이 여성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 정책 수립 과정들이 진행되기에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성평등지수가 높지만,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 등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지난 1년 간 지속적으로 후퇴해 왔습니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과 밀양 송전탑 건설, 원전 추가 건설, 철도민영화, 의료의 영리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인 갈등이 지속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극복을 함께 실천해 나가기 위해 올해 여성대회 슬로건을 민주주의와 평등세상, 소통사회를 위한 '점프, 뛰어올라 희망을 찾자!'로 정했습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여성운동이 먼저 희망을 노래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핵 없는 평화세상을 위해 다양한 세력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연대의 힘을 모아 우리들의 희망인 민주주의와 성평등, 소통사회를 위해 함께 뛰어 오릅시다. 악동하는 이 봄! 여성대회를 축하하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8일

3.8 세계여성의 날 제30회 한국여성대회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유래



3.8세계여성의 날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가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도 없었고, 노동조건이나 사회적 환경도 매우 불합리하여 늘 생활고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 보장, 임금인상, 10시간 노동 보장, 작업환경 개선 등의 권리를 요구하며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서 벌인 시위는 그야말로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단체들은 3월 8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열고 으며, UN은 1975년에 3월 8일을 '국제기념일'로 제정한 후 매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대회

한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3.8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지만, 일제 탄압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해방 후 부활하기도 했으나, 1948년 이후 사회적 격변과정에서 맥이 끊어졌습니다.

1965년 여성평우회 등 14개 풀뿌리 여성단체가 연합,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한 후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최로 2014년에도 30년째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30회가 되는 한국여성대회는 전국의 여성단체들을 비롯하여 주부, 대학생, 일반시민, 지식인, 종교인, 노동자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3.8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동적인 대회로 여성연합이 진행합니다.





2014년 3월 8일(토) 오후 1시 ~ 5시
청계광장

14:00 ~ 15:00

기념식

*사회 : 권해효(배우, 여성연합 홍보대사), 최광기(전문사회자)

- 인사말
- 성평등 디딤돌·결림돌 발표
-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
-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선언과 점프 퍼포먼스
- 축하공연 : 이은미

15:30 ~ 16:30

안녕보라 점핑퍼레이드

- 청계천 모전교 → 인권위원회 → 서울광장 → 인권위원 → 청계광장
- 마무리 점프 퍼포먼스

13:00 ~ 17:00

안녕보라 점핑난장

- 의류, 잡화, 생활용품, 와플 & 커피 판매
- 여성노동 상담
- 여성심장질환 상담과 검사, 여성주의 의료 상담과 검사
- 성폭력 추방 캠페인, 기후변화 홍보 등 다양한 여성인권 & 환경 단체 홍보 부스

문화행사

‘점핑스토리展’ 온·오프라인 전시

온 라 인 : 2014. 2. 17(월) ~ 2014. 3. 28(금) /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디지털 전시
오프라인 : 2014. 3. 3(월) ~ 2014. 3. 28(금) /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 전시 (무료)

지역별 행사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0회 경기여성대회

일시 : 2014년 3월 22일(토) 오후 2시~4시

장소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예정)

주관 : 경기자주여성연대

주최 :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민주노동경기본부 여성위원회, 한국노동경기지역본부 여성위원회

* 프로그램 : 10주년 영상 / 축하 / 단체별 공연 / 선언문 / 거리행진 / 마무리집회

2014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 26차 경남여성대회

일시 : 2014년 3월 8일 오후 2시~5시

장소 : 경남 창원시 성산아트홀 어울림마당

주최 : 경남여성단체연합

* 프로그램 : 기념식, 문화공연, 거리퍼레이드

2014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광주지역 행사

일시 : 2014년 3월 7일(금) 오후 7시~8시

주관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주최 : 2014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광주지역행사 준비위원회

슬로건 : "정프, 뛰어들라 희망을 찾자! 보라! 민주주의, 평등세상, 소통사회"

* 프로그램

- 여성영화제 : 3월 6일(목) G시네마(동구 대성학원앞) / 10시 30분~12시 '할머니와 란제리' / 7시 30분~9시 30분 '밀양전' / 감독과의 대화 / 커피, 포토존, 단체이슈전서(부대행사)
- 3·8 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 : 3월 6일(목) 오후 2시 / 광주YMCA 무진관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21차 대구여성대회

일시 : 2014년 3월 6일(목) 오후 3시30분

장소 : 대구백화점 앞 광장

주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21차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

* 프로그램

- 사전행사 : 박근혜정부 실행공약 따기 / 박근혜정부 실행공약 다트맞추기 / 6.4지방선거 홍보 참여마당 / 반전 평화 시민참여마당
- 기념식 : 가가(可歌) 프로젝트 합창단 공연 / 대화사 / 축하공연 / 오늘을 사는 여성들의 이야기 / 성평등 다담돌, 결림돌 수여 / 여성선언문 낭독

2014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5회 부산여성대회

일시 : 2014년 3월 7일(금) 오후 7시~8시

장소 : 서면(쥬디스태화)

주최 : 2014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5회 부산여성대회 준비위원회

슬로건 : "정프, 뛰어들라 희망을 찾자"

- ①민주주의 수호, 민영화 반대
- ②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③남북관계개선, 한반도 평화실현
- ④여성폭력과 차별 없는 세상

* 프로그램 : 여는공연(대북공연, 남산놀이마당) / 개회선언 및 내외빈 소개 / 대화사 / 연대사 / 축하공연1 / 발언 1 / 발언 2 / 2014년 3·8 여성선언문 낭독 / 축하공연 2

지역별 행사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19회 울산여성대회

일시: 2014년 3월8일(토) 오후 2시 (1시: 부스행사, 2시: 여성대회)

슬로건: 여성대통령 1년! 여성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요구내용: 여성노동(시간제일자리, 최저임금) / 여성인권, 여성폭력 / 여성복지 / 여성장애인(모성권) / 탈핵 / 일본군국주의반대 (일본군위안부) / 한반도평화

* 프로그램

- 부스행사(1시~2시): 요양보호사처우개선, 최저임금캠페인 / 박근혜년 여성복지정책 분석 / 성폭력근절홍보 / 일본군국주의 반대 - 일본군위안부문제 / 탈핵홍보 / 장애인 임신부체험 / 커피 나눠주기
- 본행사(2시~3시20분): 노래공연 / 개회선언 / 개회사 / 간단한 악식대회와 거리행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북여성대회

일시: 2014년 3월 6일(목) 오후 4시~6시

장소: 중앙실업광장 (중앙교회)

공동주최단체: 군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단법인전북자활협회,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프로그램: 여는 공연(전북여성장애인연대 합창단) / 개회사 / 격려 및 연대사 / 올해의 전북여성운동 디딤돌, 걸림돌 시상 / 여성발언대 / 여성발언(자립성폭력대책위 활동) / 여성발언(성평등한 지방의회를 바란다) / 팔막 공연(성폭력예방치료센터 활동가 "문을 여시오") / 여성발언(자활지원 요구사항) / 3.8 여성선언문 낭독 / 달는 공연(낯선 사람들)

3.8 세계여성의 날 106주년 제주지역 여성대회

일시: 2014년 3월 8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 일대

주최: 제주여성인권연대 외

* 프로그램: 거리 캠페인 및 문화제

3.8 세계여성의 날 포항대회

일시: 2014년 3월 5일(수) 오후 6시30분~8시30분

장소: 뱃머리평생교육관

주제: 여성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주최단체: 포항여성회, 경북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민주노총, 포항공대미화현장위원회, 포항의료원분회, (주)나눔과돌봄 사회사비스지원센터, 영남에너지 서비스센터 현장위원회

연대제안단체: 포항KYC, icoop생협, 포항환경연, 동화원은 어른모임, 급식연대, 전교조

부대행사: 자활전시, 방사능 안전급식 홍보, 여성폭력예방 홍보 등

* 프로그램: 개회 / 여성의례 / 3·8 대회소개(영상) / 축하영상 / 대회사(윤정숙 포항여성회 회장) / 축사(황우찬 민주노총 포항지부장) / 참여단체 소개 / 축하공연(축시, 합기도 공연, 전교조 어깨동무) / 토크쇼(비정규직 여성으로 산다는 건) / 폐회

2014년 3.8 여성의 날 맞이 "여성인권의 날개를 퍼다"

일시: 2014년 3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덕성여대 앞 / 지역카페 / 한진병원 식당노조

주최: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슬로건: 여성인권의 날개를 퍼다

* 프로그램: 3·8을 알려내는 홍보유인물과 작은 선물 등을 가지고 여성들이 많은 지역의 곳곳을 직접 찾아가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여성인권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선전한다.

점핑스토리展 소개



Jumping Story _ '점프, 뛰어올라 희망을 찾자'

여성운동사에서 봄을 알리는 상징 축제는 바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이다.

2014년 올해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자 희망하는 한국 여성운동의 길목에서 평등세상을 꿈꾸고, 소통사회를 갈망하는 이들의 절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호드러지게 만개하는 목련 꽃처럼, 또 다른 누군가는 살포시 꽃망울을 터뜨리듯 그렇게 뛰어 오른다. 더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성별과 세대를 넘어 함께 힘차게 뛰어오르는 그 순간, '희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 올 것임을 간절히 꿈꾸고 싶은 시대이다.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을 그릴 수 있는 것은 평등한 사회가 오리라 믿을 때문이다.

1908년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행진 이후,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계기로 억압과 차별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행진이 오늘날까지 10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전국 곳곳에서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대규모 행사를 하는 나라가 드물다고 한다. 3.8 한국여성대회는 한국여성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새롭게 쓰는 유·무형의 터(據)로서 대회를 통해 해마다 여성운동의 목표를 선언하고 실천해 왔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특별법, 여성할당제, 가족폭력방지법, 남북여성대회, 호주제폐지 등 성평등을 향한 법제 도화 운동과 사회문화 인식개선 성과를 이뤄냈다.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0회 한국여성대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특별한 전시를 준비했다.

'점프, 뛰어올라 희망을 찾자' - 점핑스토리展에서는

3.8 한국여성대회에서 여성문제 중 특정 부문을 이슈화하여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하거나, 풀뿌리 여성운동 활성화 및 사회적 공 공선과 여성인권 또는 성평등에 기여한 개인(단체)에게 수여해온 역대 여성운동상 수상자들-정대협 수요시위, 박원순 서울시장, 권인숙 명지대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외 다양한 영역의 역대 여성운동상 수상자-의 점핑샷과 응원 메시지를 만날 수 있다. 또한,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여성연합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해호, 김미화 홍보대사, 여성운동을 지지하는 명사, 여성운동과 함께하는 수많은 여성운동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점핑샷과 희망의 메시지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만난다.

'점핑스토리展'은 제30회 한국여성대회를 기념하며 많은 시민들에게 30년 여성운동사를 알리고, 향후 30년 여성운동이 힘차게 뛰어오르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여성운동사에 함께 한 이들의 점핑샷과 메시지, 수많은 시민들의 점핑샷과 메시지 참여로 지쳐있던 꿈과 용기, 그리고 희망과 사랑을 나누고자 한다.

이번 '점핑스토리展'에서는 힘차게 점프하며 뛰어오르는 희망의 목소리들을 길 위에서 만날 수 있다.

친구, 가족, 동료들과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축제 한마당에 함께 참여하여 겨울의 무거움을 벗어나고 희망을 찾는 몸짓으로 뛰어올라 힘껏 점프~!!

3월8일, 혼자라도 좋고 함께라면 더 높게, 더 나은 미래로 점프하는 것이다.

2월17일 여성연합 3.8한국여성대회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전시를 시작으로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점핑스토리展 사진공모 캠페인'이 2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시민 참여 사진들은 '세상의 빛을 모아 사람을 바라봅시다'라는 미션으로 사회공헌형 사진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바라봄 사진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 & 전시되고 있다.

제30회 한국여성대회를 기념하며 '점핑스토리展' 허스토리홀 전시장에서는 총 50점의 점프사진을 감상할 수 있다.

점핑스토리展 소개



온 라 인 : 2014. 2. 17(월) ~ 2014. 3. 28(금) /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디지털 전시
오프라인 : 2014. 3. 3(월) ~ 2014. 3. 28(금) /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 전시 (무료)

전시시간 : 평일 오전 9시30~오후 6시30분 (무료, 주말휴관)

찾아오시는 길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





민주주의, 평등세상, 소통사회를 위해

점프, 뛰어올라 희망을 찾자!



안녕들하십니까?

지난해 연말, 이 말이 우리 사회에 큰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던 인사말이 공감을 일으킨 이유는 우리의 일상조차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안녕한지 살펴보지 못한 지난 주말, 세 모녀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월세부담과 싸우며 삶을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세 모녀의 죽음은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의 안녕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아닌, 내 가족만이 아닌 이웃과 주변을 살펴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여성의 삶은 안녕했을까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성들의 삶도 힘들었습니다.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점프합시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강정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해군기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말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생존권과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외치는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병원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에서 도리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묵살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절규와 생존권투쟁 현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땀으로 일구어낸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점프합시다!

여성선언



평등세상을 향해 점프합시다!

우리나라의 성차별은 여전합니다. 성별임금격차는 OECD 평균의 2배인 38.9%로 1위이며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 격차 지수는 2013년에 11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이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여성 고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관철은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성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이 나라는 점점 성형천국이 되고 있어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전망과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등세상을 향해 달려 갈 것입니다.
평등세상을 향해 함께 점프 합시다



소통사회를 위해 점프합시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가계 부채 급증, 복지정책 후퇴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또한 노인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노인 자살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웃도는 45.9%의 빈곤율과 19.3%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여성노인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여성을 비롯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만연하여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세대 간, 계층 간 소통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통령과 정부가 먼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국민의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통일대박론'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화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의 주체로 여성이 참여해야 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소통사회를 위해 연대 할 것입니다. 소통사회를 위해 함께 점프합시다.



2014년 3월 8일
제30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제 26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



공감과 나눔의 연대!

대안적 운동의 주체로



우뚝 선 여성노인 ‘밀양 할매들’



공감과 나눔의 연대! 대안적 운동의 주체로 우뚝 선 여성노인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운동과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탈핵'이라는 중대한 이슈에 시민, 청년, 엄마와 아이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밀양을 직접 방문해 왜 시민의 목소리로 '탈핵'을 외쳐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밀양 할매들'이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밀양 할매들'이 눈물겹게 지켜온 땅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며 지속가능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경남 밀양 인근 산속에서 10여 년간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맨 몸으로 고압 송전탑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있는 '밀양 할매들'은 단순히 고압 송전탑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를 희생시키고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을 알려 내면서 탈핵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할매들'은 주체적이고 집단화된 공동 세력으로 등장했다. 그들은 운동의 방식 또한 기존의 정책, 협상 중심에서 자신의 삶과 터전을 지키며 일상에서 공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연대의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전이 전 국토에 765kV 고압 송전탑 902기를 설치하는 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운동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밀양 할매들'은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공존을 위해 활동하는 이 시대의 여성운동가이다.

제26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



몸으로 투쟁하고 있는 밀양 송전탑 반대 활동

밀양주민들은 2005년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울산 신고리와 북경남을 잇는 765kV 송전선 건설계획을 알게 되었다. 송전선이 지나가는 밀양 구간 5개면은 전체 인구가 2만 1,069명이지만 송전선로 좌우 1km 이내에 들어가는 경과지 주민만 해도 3,700여 명(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은 총 13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갈등조정위원회, 대화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등의 기구가 구성되어 중재하려 했지만, 보상 중심의 한전 논리와 경과지 변경, 원전 증설 반대, 지중화 등의 요구를 가진 주민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이 활동을 10여년의 장기적인 투쟁으로 만들었다. 10여 년 동안 대책위 지도부가 여러 차례 교체되었다. 2012년 1월 이치우 할아버지가 분신자결하기 이전까지의 지도부는 남성 중심이었고, 그분들은 '더 이상 막는 것은 불가하다. 정부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고 포기하면서 이탈해갔다. 그 과정에서 부수적인 존재였던 여성들, '할매들'이 송전탑 반대활동의 실제 주체가 되었다. 이전까지 밀양 송전탑 반대활동에서 여성은 농성장에 손님이 오면 밥을 차려내고, 지도부가 결정하는 대로 전국단위 집회나 행사에 동원되는 존재였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투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는 여성들이 가장 완강하고 끈질기게 싸우고 버텼다. 송전탑 반대활동이 밀양의 관변단체, 지역 정치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지역 언론에게까지 무시당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까지 남은 '할매들'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였다.

2013년 3월 17~18일 탈핵희망버스를 시작으로, 전국의 생협, 가톨릭 및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 지식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교사, 대안학교 학생 등이 밀양을 직접 방문하였다. 이때 '할매들'은 귀찮아하지 않고 식사를 대접하고 자신들의 투쟁을 증언하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땅과 고향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러한 한결같은 현대와 타협하지 않는 정신-굳은 의지는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리하여 이 활동은 '보상금 더 받아내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땅과 고향을 지키고,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터전을 지키는' '할매들'의 투쟁'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더불어 밀양에서도 소수의 열성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탈핵에 대해 말하는 걸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탈핵희망버스 이후에 조금씩 달라지면서 신규 원전 예정지인 신고리 지역, 강원도 삼척, 경북 영덕까지 연대를 확장해 나갔다.

밀양 송전탑은 바로 우리 삶의 문제

밀양송전탑 반대운동은 밀양지역에 송전탑을 세우는 것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 간, 세대 간 불균형과 불평등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문제, 우리의 미래를 말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은 대도시의 과전력 소비를 위해 작은 시골마을 주민들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논리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것이다. 생활터전에 송전탑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시작한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은 우리사회가 전기를 만들고 유통하는 과정 전체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에서 원전 문제로, 그리고 발전과 송전을 아우르는 전력정책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밀양 할매들'은 비 오는 산 위에서 노숙을 하고, 용역과 경찰의 물리력에 맞서 알몸으로 싸우고, 포크레인에 자신의 몸을 묶으며 절박하게 저항해왔고 그 저항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



노동탄압, 성희롱 등 인권유린에 맞서 당당히 투쟁하고 있는 김천직지농협 근무자 김미숙 과장

25년째 김천직지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미숙 과장은 지난 2010년 3월에 재선된 조합장의 당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후 4년간 인사상 불이익, 집단 따돌림, 부당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에 김미숙과장은 부당해고 철회, 인권탄압 중단, 복직 싸움에 이르기까지 끈질긴 투쟁을 지속하여 1심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 2013년 9월 2일자로 복직하였으나 복직 후에도 인권유린은 계속되었고 상사인 간부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까지 당하게 되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김미숙 과장은 끈질긴 투쟁으로 성희롱 사건을 지역 내 알려내었고 지금도 직장 내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출근하면서 여성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에서 여성 경찰로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켜낸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현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이하 권은희 과장)은 2005년 경찰에 입문했다. 사법고시 출신의 첫 여성 경정으로,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으로 국민들이 경찰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국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절하고 헌신적인 경찰상을 정립하고 싶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지난 대선당시 국정원 직원 댓글 수사를 담당한 권은희 과장은 수사과장에 서울지방경찰청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상부 외압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경찰 수뇌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경찰 간부들의 위증을 고발하고 관련 정황을 밝히기도 했으며, 검찰은 김용판 전 청장 등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권은희 과장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경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부부강간죄'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명철 대법관은 2013년 5월 16일, 부인을 용기로 위협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혼인관계일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한 경우 강간 혐의로 처벌하는 첫 번째 경우로 그동안 여성운동계가 요구한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판결이다.

이 판결을 통해 그 동안 부부간에 성적인 학대가 발생해도 '성관계가 부부간의 의무'라고 생각하여 피해를 드러내지 못했던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여 곧 여자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여성연예인 성착취 실태를 고발한 영화 <노리개> (최승호 감독)



여성들이 목숨을 끊으면서 성착취 비리를 고발했지만, 고위 권력층에 대한 성착취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13년 3월에도 건설업자에 의한 고위층 성착취 의혹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9년 사망한 '故 장자연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노리개'가 2013년 4월에 개봉했다. 이 영화는 대중매체를 통해 '여성연예인 성착취' 실태를 드러내면서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고, 여성인권 현실을 고발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영화 개봉을 계기로 권력형 비리와 성착취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와 그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대안을 모색하는 정도 마련할 수 있었다. 더불어 성착취가 관행이 아니라 폭력과 불법행위이며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



성추행을 하고도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 중에 인턴에게 성폭력을 행하고도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채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턴의 영영이를 만지고 호텔방으로 불러서 알몸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인 인턴과 한국문화원 직원이 한국문화원 책임자에게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문화원, 주미대사관,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무마하고자 했으며, 윤 전 대변인의 도피 귀국을 지원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대신, 적당히 무마시킬 수 있는 개인의 사소한 실수나 스캔들로 치부하는 박근혜 정부의 낮은 인권과 성평등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 사

건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자체 선정한 2013년 세계적인 굴욕사건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기자 3명을 성추행하고도 경고 처분만 받은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2월 26일,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기자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보보 한 번 할까", "내가 참 좋아해" 등의 말을 하며 몸을 밀착시키고, 어깨 동무를 하며, 손을 잡고 손등에 키스하고, 등을 쓸어내리고 허리를 껴안는 등 수 차례 성폭력을 가했다. 이후 기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자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진한 검사는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런 적 없다고 발

행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추행이 발생하면, 검찰 내부 지침상 '성 폭속 관련 비위 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검찰 내부 주의 조치 정도인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없이 대검 내부 검찰로 종결되었고, 지난 1월 16일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받았다.

이에 대구지역 여성단체들은 서부지청 앞에서 이진한 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해당기자에 의해 고소되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 김태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자 대변인인 김태훈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람을 무기 계약직 되면 노동3권 보장된다. 툭 하면 파업할 타인데 어떻게 관리하려고..."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노조와 협상해야 하는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1981년도에 용역으로 전환돼 30년 넘게 큰 문제없이 진행된 것을 왜 바꾸려하나"고 발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대한민국 헌법 3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노동자로서 가져야 할 3가지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김의원의 발언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헌법조차 모른 채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더욱이 김의원의 발언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직고용 전환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국회 소속 민간근로자 609명 중 83%에 달하는 506명은 비정규직이며, 시중노임단가 150만 원에도 못 미치는 120만 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이중 204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정치인이 용역노동자로서의 고통과 실움을 살피지는 못할망정 그 고통이 당연하며 '30년 넘게 큰 문제없이 진행된 것'이라는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망각한 발언이다.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



시설 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은폐 묵인한 자립복지재단 및 가해원장 2명

자립복지재단 소속 시설 원장(생활시설 원장, 보호작업장 원장) 2명은 지적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해 온 여성장애인을 10여명에 대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자행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 없이 본인들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오히려 고발한 직원들이 성폭력사건을 꾸며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립복지재단은 2011년 11월경 시설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이를 은폐·묵인하면서 가해자인 생활시설 원장이 2012년 1월 퇴사하는 것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하였다. 또한 2012년 가해자인 원장이 퇴사한 후에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함으로써 직원들을 입막음하고자 했다. 2012년 11월, 현직 원장(보호작업장 원장)이 성폭력 가해자로 또 다시 고발당했고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자립복지재단은 이를 무시하였고, 현직을 유지하게 하다. 2012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 성폭력 문제를 고발한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조치들은 계속되고 있다.(업무 배제 등 노동권 침해, 해당 직원의 사무실 배치 변경 및 CCTV 설치 등을 통한 정서적 피해 유발 등)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에게 불이익 처우를 가하는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후 성희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가해자 징계와 분리, 예방교육 실시 등 성희롱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가해자인 상사에게는 경징계를,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직원에 대해서도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

2013년 12월,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가 회사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재심을 청구하며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지속하고 있다.

성희롱 및 불이익조치 사건은 한국사회의 성평등을 저해하고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차별이 집약된 문제이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조치로 인해 여성 노동자가 오히려 과중한 고통을 겪으며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남양유업

남양유업은 결혼한 여성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산전후 휴가 불허,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등 여성노동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자행해 왔으며, 모집과 채용부터 승진배치, 임금에 이르기까지 전 고용과정에서 성차별 행위를 용인해왔다.

남양유업이 밝힌 회사 인력현황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정규직 1960명, 비정규직 720명이며, 그 중 여성 정규직 규모는 겨우 89명으로 전체 정규직 대비 5%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다. 또한 2012년 사업보고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863명으로 전체 2731명 중 31.6%에 이르며, 매장 판매직원이나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비정규직의 많은 비율이 여성이고 여직원과 남직원의 평균 급여차이가 최고 2배에 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생산직의 경우 남성은 5,114만원, 여성은 2,539만원으로 약 2배의 차이가 났고, 영업직은 남성 3,070만원, 여성 1,668만원으로 약 1.84배의 차이가 났으며, 관리직의 경우에도 5,144만원과 3,114만원으로 1.73배의 임금격차가 났다.)

여성운동상 상금 후원 명단



올해의 여성운동상 상금을 마련해주신 분들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강인순	경남대학교 교수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손정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권미혁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권인숙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소장	유일영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장
김경영	경남여성회 대표	윤정숙	포항여성회 회장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이석행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철순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이사장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임운옥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김영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전숙희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미정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정경숙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문미란	변호사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박기남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조선희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은순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주경미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		

30th 2014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부 : 경기여성단체연합, 강원여성단체연합, 충청남부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제주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 강릉여성회와 강화여성회와 거제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다신지부 경남여성회 부설 셋별지역아동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와 고양따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회와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서구지역아동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센터 '한울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원터 푸른꿈터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구로살터지역아동센터 구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군산여성의전화 군모여성민우회 기동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남부여성발전센터 남산사회교육센터(마라도서관) 내동사회교육센터(마라도서관) 늘함개청초년성문화센터 다울교육문화센터 다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공동작업장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회 부설 노동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라운' 평생교육원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해를 자립생활센터 대전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학자협의회 대전평화여성회 통두천새울터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산희망지역아동센터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북구지역아동센터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설 여성리더쉽센터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설 원터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해님' 평생교육문화센터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직업재활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천나눔지역아동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생살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울터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시 직장암 지원센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각장애인여성회 시각장애인여성회 부설 여성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흥여성의전화 아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양지지역아동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양산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지원센터 신탄진 여성인권터울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 남구지부 울산여성회 동구지부 울산여성회 부설 고용평등센터 울산여성회 부설 북구 가정폭력상담소 울산여성회 부설 지역아동센터 느티나무 울산여성회 부설 지역아동센터 밝은세상 울산여성회 부설 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 울산여성회 부설 지역아동센터 자람터 울산여성회 부설 지역아동센터 징검다리 울산여성회 부설 지역아동센터 천국자람터 울산여성회 부설 지역아동센터 푸른솔 울산여성회 부설 지역아동센터 햇살 울산여성회 북구지부 울산여성회 울주군지부 울산여성회 중구지부 원주여성민우회 의정부여성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 인천부평지역아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무지개 원터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지원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동불이학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님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원터 불꽃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지원지원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거제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거창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주시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양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양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리남양지부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미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해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주시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남부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마창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주시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부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산대인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아산(준비위)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동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양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양주시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영양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용인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원주시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성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양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주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진주시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칠곡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파주시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포항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홍성지회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화순지회 창원여성상업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각장애인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동북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종합지원센터 밀양희망지역아동센터 평동어린이집 명택새울터 평화물만드는여성회 평화물만드는여성회 부설 길동해결센터 평화물만드는여성회 부설 한국어성평화연구원 포항여성회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포항여성회 부설 바다솔지역아동센터 풀뿌리여성'마을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린터 한국어성노동자회 한국어성민우회 한국어성민우회 부설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어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한국어성연구소 한국어성의전화 한국어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햇순여성상담소 / 253개 단체

여성·시민·사회·문화·인권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동육아와 가족채움 국민권선위 부채그림운동 부채인형 대한심장학회 여성성정질학회
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불교여성개발원 상생지원 상매대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안전을지키는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
국실업대책단체인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총북여성연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한국장년대문제연구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한독사외경제연대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여거리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회) / 31개 단체

축하광고



우리사회 양성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제30회 한국여성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금숙 원장



제30회 한국여성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마음을 다하여 함께하겠습니다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0회 한국여성대회를 축하합니다.
민주주의, 평등세상, 소통사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이화민주동우회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0회 한국여성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민주당은 여성들이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민주당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건강한 여성을 위하여, 제30회 한국여성대회를 축하합니다.

대한심장학회 여성심장질환연구회



점프! 뛰어올라 투투를 찾자!

투투플라워(02-2265-2020)



여성들이 법과 사회생활에서도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국여성법무사회



차별 없는 성평등 사회, 희망이 있는 사회,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iCOOP생협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30회 한국여성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icoop 생협



딸들에게 희망을! 3.8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합니다.



여성들의 힘찬 도약! 우리 모두가 응원합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0회 한국여성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



차별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계, 돌봄과 나눔의 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축제, 한국여성대회 30돌을 축하합니다!

사학연금 이사장 김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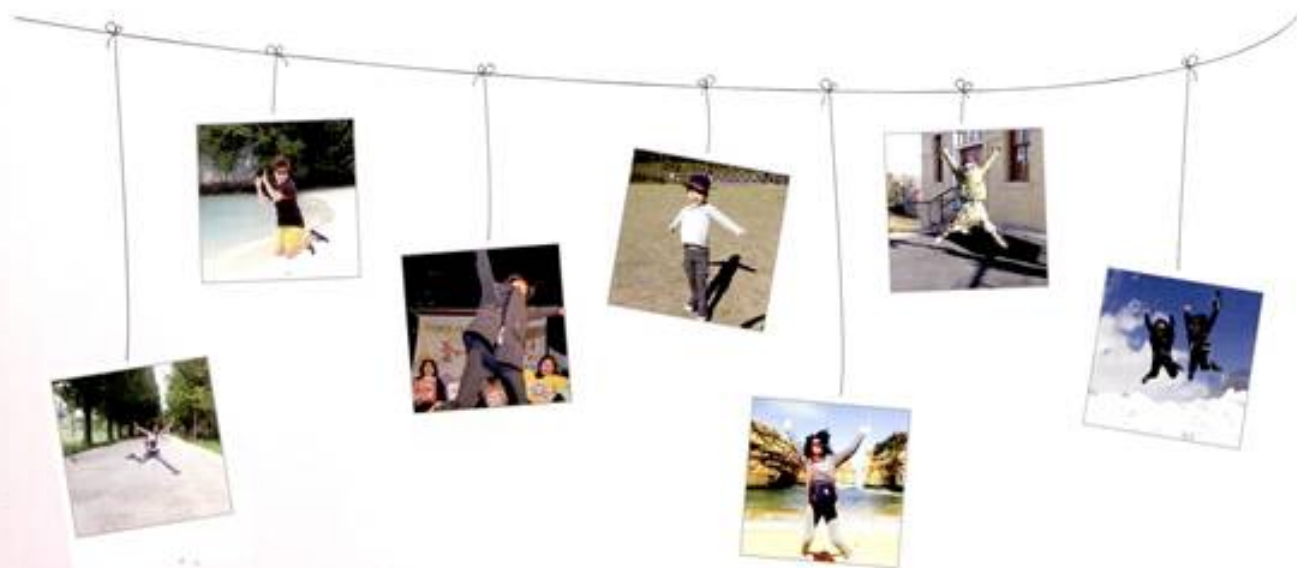


점프, 뛰어올라 희망을 찾자!

전국의 여성운동가와 시민들이 보내온
희망을 찾아가는 점프 응원메시지



점프! 세계와 성별을 뛰어넘어 희망을 찾자! 우리의 미래를 향해 점프! 희망을 찾자!
점프! 행동하는 여성들이여, 내일의 희망을 찾자! '방배부러~' 희망을 찾자!
점프! 생명과 평화의 희망을 찾자!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 평등한 세상이 되는 날까지!
소통이 이루어져야 희망을 만들 수 있다. 성차별없는 세상, 희망 상상 행동!



슬로건 놀이



대학동기인 우리들, 올해로 50번째 함께하고 있다.

어느덧 20대 중반인 시끄러운 우리들 갈수록 심해지는 경쟁사회 속 끝없는 스펀지공,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꿈과 희망, 젊음의 때가, 청춘의 열정이라는 말들도 무색해지는 것 같다.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너부도 '비정상적인' 사회현실들 그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개로 더욱 크게 희망을 외쳐보자. "희망아~ 어디있어~?"
'비정상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팅이!



나이 32살, 하지만 우린 아직 젊고 더 밝은 날을 위해 더 열심히 뛰고 날아보자꾸~!!
조금들이 여성과 다르거나 많이 좋아진 것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네요.
직장을 다니면서 남녀차별 받고 무시 받는 여성분들!!
날아봅시다. 날아봅시다. 좋은 날이 올 때까지, 화명~!!
점프 날아올라 세상의 희망을 찾아보아요!
여성의 날 keep going !!! 점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자!

점프! 초록의 희망을 찾자!
점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새 희망을 찾자!
점프! 뛰어난 자유를 노래하자~
점프! 반성폭력 희망을 찾자!
점프, 여성의 생명력으로 희망을 찾자!
점프 "성장" 희망을 찾자!
점프! 돌리임! 일하는 여성의 희망을 찾자!
점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어 희망을 찾자!
점프, 폭력과 차별을 넘어 희망을 찾자!



함께하는 사람들



출연진

* 기념식 사회



권해효
여성연합 홍보대사(배우)



최광기
(전문사회자)

* 노래공연



이은미
(가수)

* 거리행진 사회: 이부민 서울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갈놀이 공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함께놀이' 풍물패, 동북여성민우회 '다꾸리' 풍물패

사진촬영 (점핑스토리展, 행사사진)



나중엔 착한사진가, 이현수 착한사진가

* 홍보영상 제작: 조대희 PD

* 연출자문: 유수훈 슝 엔터테인먼트 대표

준비한 사람들

기획·총괄: 김미영 여성연합 기획국장

여성연합 사무처: 박차옥경 사무처장, 양이현경 정책실장, 김은희 여성미래센터 사무국장, 유일영 국장, 오보람 부장, 김경미 활동가, 김현수 활동가, 문화주 활동가, 천미희 인터넷활동가

기획·실행위원: 경기여성연합 이안자 사무국장, 경남여성연합 신미란 사무국장, 광주전남여성연합 한황주연 사무국장, 대전여성연합 임원정규 사무국장, 부산여성연합 조명희 사무국장, 전북여성연합 노한정 정책실장, 대구여성회 남은주 상임대표,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송현이 사무국장, 수원여성회 서주애 사무국장, 제주여성인권연대 홍리리 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최민정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 양무현 활동가,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사무처장, 한국여성민우회 고깡 복지팀장, 바나 활동가, 한국여성의전화 최희진 활동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민주 활동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송옥진 활동가

* 디자인·무대·음향: 새터

자원활동가 (총 38명)

권정은 김민희 김상화 김서영 김성미 김수연 김예빈 김지혜 김진솔 김하민 모지혜 민주희 박선아 박예린 박유정 박종옥 서지윤 성슬아 손지원 송기림 신소영 신은지 오소연 유찬미 이원빈 이인솔 이지선 임유원 임지은 임현종 장다혜 전민지 전송이 정솔 정주영 전해뜸 최유리 하지원

* 수화통역: 이금란

* 거리행진 퍼포먼스 '안녕보라' 3인: 큐브 이벤트

IOPE 스킨리포트



여성이기롭히고여성이기억
하는여성을기롭히고여성을
기억하는바로이곳성평등
서관여성이기롭히고여
성이기롭히고여성이기
고여성이기롭히고여성이기
성평등
도서관
여기
여성이기롭히고여성이기
하는여성을기롭히고여성을
기억하는바로이곳성평등
도서관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피부를 만드는 컨디셔닝 효과

스트레스, 건조, 음주 등 많은 외부 자극들로 남자의 피부컨디션은 계속 떨어집니다. 칙칙하고 거칠어진 피부를 바꾸고 싶다면, 맨 바이오 에센스를 챙겨주세요. 매일 변화하는 피부컨디션을 빠르게 끌어 올려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기억하세요, 피부만 좋아져도, 당신의 남자는 확 달라 보입니다.

3일 후 느껴지고, 14일 후 완성되는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남자 피부

3일 후, 피부 보습력이 증가되는 것을 느꼈다	90.91%
3일 후,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81.82%
7일 후, 피부가 탱글해짐을 느꼈다	86.36%
7일 후, 피부가 환하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다	95.45%
14일 후, 피부가 전체적으로 좋아짐을 느꼈다	100%

1) 바이오 맨 바이오 에센스 인테치용 시험자 대상 3~14일 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2) 21.6 ~ 23.2, 11, 20 세 27남성 27명 대상 / 조사기관: 코리안 피부안정연구센터
3) 1회 사용 후 3일을 경과한 뒤의 결과



IOPE
MEN
바이오 에센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사람들은 왜
창가에 화분을 놓을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숲이 있기 때문입니다

벤자민, 동백나무, 고무나무, 히브, 난초, 선인장... 햇볕 잘 드는 창가에, 아파트 베란다에, 사무실 책상 위에 우리는 화분을 키우고 가꿉니다. 몸은 비록 숲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늘 숲과 가까이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숲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유한김벌리